

# ‘시즌 통합설’ 티빙, 파라마운트+ 신는다… 콘텐츠 중무장

CJ ENM, KT스튜디오지니에 1000억원 규모 투자배경 관심 이르면 이달 중 통합 발표 전망 16일엔 ‘파라마운트+’ 관 오픈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티빙과 시즌의 통합설이 급부상하고 있는 데, 티빙과 시즌이 통합되면 지상파 3사와 SK텔레콤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토종OTT인 ‘웨이브’를 넘어서게 될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글로벌 OTT인 파라마운트플러스가 티빙에 브랜드관을 오픈해 국내에 본격 진출한다.

또 OTT 업계의 후발주자들이 경쟁에 뛰어들면서 OTT 시장은 지각변동에 접어들었다.

## ◆‘티빙’ 및 ‘시즌’ OTT 업체간 통합설 급부상

CJ ENM의 ‘티빙’과 KT ‘시즌’의 OTT 통합설이 급부상하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티빙과 시즌이 다음달 경 통합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티빙의 최대 주주인 CJ ENM과 자회사인 케이티시즌을 통해 ‘시즌’을 보유한 KT가 OTT 통합을 위한 협상을 물밑에서 진행해왔으며 이미 상당 부분이 조율된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KT와 CJ ENM은 지난 3월 말 콘텐츠 분야에서 시너지를 거두기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또 지난 3월 CJ ENM이 KT스튜디오지니에 1000억원 규모 투자를 단행한 것이 통합설이 제기된 강력한 배경이 되고 있다. 최근 OTT 플랫폼 시장 경쟁이 치열해졌는데, 각각의 별도 플랫폼을 유지하는 것보다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분 투자를 기점으로 2개의 회사는 ‘콘텐츠 사업협력위원회’를 결성한 후 강호성 CJ ENM 대표와 윤경립 KT 그룹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사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해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양사의 협력체제는 주로 ‘콘텐츠 동맹’에 국한됐지만 티빙과 시즌이 결합한다면 플랫폼 영역까지 긴밀히 협력하게 된다.

강국현 KT커스터머부문장(사장)은 지난 4월 7일 개최된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아직까지 CJ ENM 측과 협력과 관련해 정확히 정해진 바는 없다”며 “하지만 토종 OTT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티빙 관계자는 ‘시즌과의 통합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 KT 측은 “양사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해진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 ◆티빙, 16일 파라마운트플러스의 브

## 랜드관 오픈… 티빙 가입자수 큰 폭 증가 기대

티빙은 오는 6월 16일 파라마운트플러스 브랜드관을 처음 선보인다. 티빙 베이직 요금제 이상의 이용자라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이 파라마운트플러스의 콘텐츠를 마음껏 볼 수 있게 된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에 참여한 X box 게임 원작 블록버스터 시리즈 ‘헤일로’를 비롯해 ‘슈퍼 펌프드: 우버 전쟁’, ‘엘로우재킷’, ‘메이어 오브 킹스타운’, ‘1883’ 등을 선보인다.

또 파라마운트 픽처스 대표작도 만나 볼 수 있다. ‘미션 임파서블’, ‘탑건’, ‘트랜스포머’, ‘대부’, ‘포레스트 검프’ 등 CBS 인기 시리즈를 공개하고, 애니메이션 ‘스폰지밥’과 코미디 센트럴 ‘사우스파크’ MTV 영어덜트 시리즈 ‘쇼타임’ 작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티빙 관계자는 “파라마운트플러스는 글로벌 미디어 그룹으로 아시아 지역에 처음 진출하면서 한국을 선택해 교두보로 삼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특히 티빙과 제휴를 통해 브랜드관을 런칭하는 것이며, 고전명작들이 굉장히 많은 파라마운트플러스를 티빙 가입자라면 추가 요금 없이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파라마운트플러스는 티빙 브랜드관 론칭을 시작으로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 협력을 확장할 계획이다. 지난 2월 파라마운트플러스는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운더’를 시작으로 총 7편의 티빙 오리지널에 공동 투자해 글로벌에 선보인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티빙의 양지를 대표하는 “국내 대표 OTT 티빙의 독보적인 오리지널 콘텐츠와 파라마운트플러스의 방대한 콘텐츠가 더해져 더욱 탄탄한 라이브러리를 구축했다”며, “앞으로 티빙과 파라마운트플러스와 전방위적 협력을 통해 티빙의 강력한 콘텐츠 경쟁력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티빙은 파라마운트플러스의 브랜드관 오픈으로 가입자수의 큰 폭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 LGU+, CJ올리브네트웍스와 ‘5G특화망’ 협력

‘이음5G 사업’ 업무협약 체결 전용회선 공급, B2B 생태계 확장

LG유플러스는 CJ올리브네트웍스와 함께 5G 특화망 ‘이음(e-UM)5G’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음5G는 통신사가 아닌 사업자가 특정 지역이나 건물, 공장 등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5G 네트워크다. 비면허대역 주파수를 사용하는 와이파이(WiFi)에 비해 통신품질과 이동성, 확장성, 보안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

정부는 지난해 각각 4.7GHz, 28GHz 대역 주파수를 이음5G용 주파수로 할당하고 5G 생태계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활·문화 기반 종합 IT서비스 기업인 CJ올리브네트웍스는 1995년 설립 이래 IT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CJ그룹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음5G사업 협력을 통해 CJ올리브

## G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MOU



LG유플러스 서울 용산사옥에서 열린 이음5G 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차인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왼쪽)와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사업 협력을 다짐하고 있는 모습. /LG유플러스

네트웍스가 탑 티어(TOP TIER) 디지털 서비스 기업으로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고객중심의 혁신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연내 CJ그룹 계열사 사업장과 대외 사업현장에 이음5G를 구축해 물류·공장 자동화, 빅데이터 분석, 콘텐츠 유통 등 대내외 사업 혁신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스마트 물류, 스마트 공장 등 로봇 설

비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사업장에서는 기존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대규모 트래픽 처리가 가능해지며,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5G 드론, 고화질 라이브 생중계, AR/VR 실시간 실감형 서비스,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사이니지 등 고객 대상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영상 제작, 편집,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리스크와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대량의 콘텐츠 유통 혁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LG유플러스는 CJ올리브네트웍스에 인터넷 전용회선을 공급함으로써 안정적인 5G 서비스를 돕기로 했다. 이를 통해 5G B2B 생태계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의 자회사 LG헬로비전도 보조회선을 제공하며 이음5G 사업의 성공을 돕는다.

또한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자내성암호(PQC) 전용회선 등 신규 서비스를 적용해 이음5G의 보안을 강화하고, 데이터 제휴를 통해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도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채윤정 기자



플러스바 진입 최호명(방송채널 진입시).

/SK브로드밴드

# SKB, 골프대회 실시간 데이터 방송 중계

채널132번 ‘B tv 플러스바’ 적용 양방향 데이터방송 서비스 경험

B tv가 골프 중계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골프 중계를 시청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선수는 지금 몇 번 홀에서 플레이 하는지, 순위 및 스코어카드는 어떻게 되는지,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을 바로 볼 수 있는지’ 등 다양한 고객니즈를 충족시키는 스포츠 데이터 방송을 SK브로드밴드가 업계 최초로 시작하기 때문이다.

SK브로드밴드는 2일부터 5일까지 제주도 서귀포시 핀크스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SK텔레콤 오픈 2022’ 남자 골프 대회에 데이터 방송 ‘B tv 플러스바(Plus Bar)’를 적용해 중계한다고 1일 밝혔다.

B tv 플러스바(Plus Bar)는 이번 대회를 중계하는 B tv 채널 132번(JTBC GOLF)이 제공하는 데이터 방송으로 국내 스포츠 중계 방송에 적용하는 첫 사례다.

B tv 고객이 JTBC GOLF 채널을 선택하면 15초 뒤 자동으로 B tv 플러스바(Plus Bar) 데이터 영역이 활성화된다. 이를 통해 출전 선수, 조편성, 실시간 순위, 선수별 AI 편집 하이라이트 영상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이벤트 참여도 가능하다. 골프 방송을 보면서 양방향 데이터 방송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좋아하는 선수의 플레이 모습을 따로 즐길 수 있는 하이라이트 영상은 골퍼팬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채윤정 기자

# 워크데이, 1분기 매출 전년비 22% 증가

워크데이가 2023 회계연도 1분기 재무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22.1% 증가했다.

기업용 인사, 재무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기업인 워크데이 2023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총매출은 14억 3000만 달러로 2022 회계연도 1분기 대비 22.1% 증가했다. 구독 매출은 12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억8860만 달

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2억8850만 달러)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주당 순이익은 0.86달러로 지난해 동기 0.93달러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아닐 부스리(Aneel Bhusri) 워크데이 공동 창업자 겸 공동 CEO 겸 대표이사는 “워크데이는 2022 회계연도에 가속화된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강력한 1분기 실적을 거뒀다”며 “우리는 계속 우리 고유의 문화를 고취시키면서 인사와 재무 부문을 아우르는 혁신을 추진, 세

계 최대 기업을 포함한 우리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가치를 확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차노 페르난데즈(Chano Fernandez) 워크데이 공동 CEO는 “우리의 지속적인 글로벌 모멘텀과 건실한 거래 파이프라인 덕분에 2023 회계연도에도 뛰어난 실적을 거둘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성공에 너무나 중요한 우리 직원들에게 집중하면서 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높은 고객 만족도를 실현하고 파트너 생태계에서 혁신 노력을 확대할 것이다”고 밝혔다. /허정원 기자 zelkova@

## 위메이드

# ‘미르M’ 23일 출격

위메이드의 대작 MMORPG ‘미르M: 뱅가드 앤 배가본드’(이하 미르M)가 오는 23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31일 진행된 ‘미르M’ 쇼케이스 ‘미르 대륙으로의 특별한 동행’은 영화 배우 황정민의 안내로 포문을 열었다. 모험이 시작되는 ‘은행골’에서부터 상인과 노점이 즐비하게 늘어진 ‘비천성 상점 거리’까지 게임 속 배경을 직접 거닐며 활력 넘치는 미르 대륙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줬다. /최빛나 기자 vitna@